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물고기를 통한 일탈적 조형 표현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민주

물고기를 통한 일탈적 조형 표현연구

이 재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민주

인 준 서

김민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는 일탈의 욕구는 본인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

본 논문은 자아 속의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떠나는 행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긍정적 일탈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만나는 과정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작품의 제작배경과 작품에 나타난 내용적, 조형적 측면을 연구 분석하여 본인의 작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탈의 조형적 표현은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을 축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긍정적 일탈을 나타내고자 한다. '일탈의 욕구'와 같은 심리가 반영된 대상들은 본인만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된다. 이들은 나의 심리적인 공간을 형성해 나아가고. 그 공간은 다양한 자아의 모습이 섞여 현실을 벗어나고픈 일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또는 동경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곳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현실과 이상이 뒤섞인 한 개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물고기는 작업의 조형적인 요소로서 인간이 숨쉬는 공기속의 대지가 아닌 물속의 생활에서 물 밖 세상을 꿈꾸는 존재로 일탈에의 욕구를 상징화하고 있다. 그리고 물속의 풍경, 꽃과 물풀, 나무 등 그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켜 현실과 이상을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염색 작품만이 갖는 투명한 겹침 효과는 색채와 형태에 있어서 독특한 깊이를 만들어내 각각의 조형적인 요소들이 서로 융합되어 공존하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한 공간 안에 복합적인 구성이 가능하고, 단일한 매체로써 완

결 지을 수 있어 '일탈에의 욕구'를 꿈꾸는 자아속의 또 다른 자아를 상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작업의 동기 및 제작방법, 화면구성, 색채, 형태등과 같은 조형적인 부분을 서술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심리와 경험을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형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과 일련의 작업을 통해 일탈의 새로운 긍정적인 면을 표현함으로써 일탈에의 욕구를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물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4
1. 이론적 배경	4
1) 물고기의 정의	4
2) 물고기의 상징성	6
2. 물고기형상을 통한 조형적 표현	8
1) 일탈의 의미	8
2) 일탈의 이미지 표출	9
3. 작품설명	11
1)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11
2) 작품분석	14
III. 결론	36
참 고 문 헌	
참 고 도 판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마음속 어딘가에서 항상 춤추고 있는 꿈을 보고 싶다	14
【작품 2】 사람의 마음에는 공명을 일으키는 감흥이 있어야한다	17
【작품 3】 진실은 보이는 곳 넘어 그곳에 있다	20
【작품 4】 꽃보다 아름다워	23
【작품 5】 삶의 진정성, 나아가다	25
【작품 6】 외출	27
【작품 7】 삶, 익숙한 것 외에도 많은 낯선 것들의 공존	30
【작품 8】 찰나의 영속성, 사랑	33

도 판 목 차

<도판1.> 바다 속의 모습

<도판2.> 해초의 색과 모양

<도판3.>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운동감 이미지

<도판4.> 꽃이 갖고 있는 모습

<도판5.> 배경이미지 : 그림자를 통한 겹침, 수면위의 반짝이는 잔상, 우주 속의 다양한 색과 잔상

I. 서론

1. 연구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일상생활은 사회생활과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져 돌아가고 있다. 사회로부터의 일탈이 일상에서 이뤄 질 수 있고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 사회를 통해 이뤄 질 수도 있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우리에게 부분 혹은 전체로써 존재하며 매우 반복적이고 단순한, 우리가 의식주의 기본을 실행하듯 믿고 살아가는 생활세계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하나의 견고한 틀이다.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체계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일상선 위에 놓여진 예술 활동으로써,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실한 자기 자신의 발견으로 개인적인 예술적 삶을 대변하는 표현방법이다. 그동안의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 각자의 삶의 경험에서 오는 심상이나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생활 속에서 꿈꾸는 긍정적인 일탈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힘의 밑거름으로써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을 통한 소통의 장을 열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탈에의 욕구'를 조형화 된 예술언어로 승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인간의 존재는 부단히 현실에서의 일탈을 꿈꾸며 마치 숙명과도 같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제도나 조직이 규범을 강조하는데 반비례하여 현실공간에서 지친 영혼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 군상의 그림자와도 같다.

본인은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심상을 물고기 이미지를 통해 일탈이라는 조형적 언어로 풀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예술 활동을 통한 자아성찰로 본인의 작품 속에서 물고기는 본인을 둘러싼 환경 속의 자아를 투영한 매개체로써 현실과 이상을 오가는 갈등의 감정을 표출해 일상적 자아 (현상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자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기서 물고기는 긍정적 일탈을 꿈꾸는 본인을 타나내며 외부와 연결된 하나의 개체로서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일상의 삶속에서 언제나 꿈꾸며 살아가는 희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물고기와 꽃, 물 속 풍경 그 밖의 유기체적 형상들은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변형시켜 추상화 한 것으로 본인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로써 본인의 이야기를 위한 하나의 매개물로 존재한다. 또한 작품 속의 물고기는 온전한 형태 혹은 분열된 형태로 꽃과 물풀, 나무와 어우러져 현상과 본질을 하나의 화면에 함께 표현하여 일탈이란 주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의 하단부에 위치한 물고기는 형태와 색채 모두 단순화 된 표현으로 일탈을 꿈꾸는 자아를 형상화 하였고, 화면의 상단부에 위치한 물고기는 화려한 색과 꽃을 포함한 몸체를 운동감 있게 표현하여 일상에서 벗어난

자아를 형상화 하였다. 이러한 조형적 언어를 화면에 연출¹⁾하는 방법으로 염색의 기법 중 하나인 납방염(蠟防染,BATIK)²⁾을 선택하였다. 이 기법은 맑고 투명한 물속 풍경과 물고기와 물풀 등의 유동적인 선을 자유롭고 깊이 있게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또 다른 자아성찰을 통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적절한 타협 속에서 전개 되어지는 올바른 나의 모습을 구축해 나아가고자 한다.

1) 연출(演出)-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 내다.

2) 납방염- 여러 종류의 납(밀납, 파라핀, 목납)을 녹여 의도된 부분의 천 위에 방염을 시켜 방염한곳을 제외한 부분을 염색시키는 방법으로 방염력이 강하며 구상한 대로 다양한 화면을 연출할 수 있다. 납이 칠해진 부분은 염료가 착색되지 않아 '납방염'이라 칭한다.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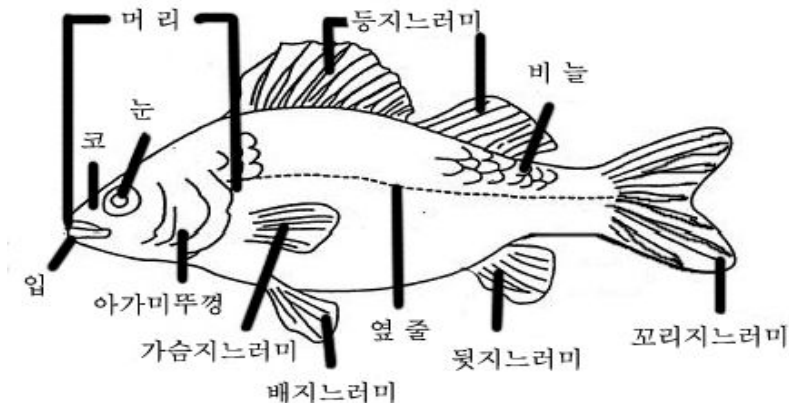
1) 물고기의 정의

물고기는 척추동물 중 최초로 지구위에 출현한 우리의 조상이다. 물속에서 육지동물의 폐에 해당하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지느러미를 움직여 헤엄쳐 다니며 많은 양의 알을 낳아 그 중 살아남은 알만이 번식을 하고, 물 밖에 사는 특수한 종을 제외 일반적으로 바다나 강, 호수 등지에 무리지어 이동을 하며 생활한다. 약 4억 5000만년 전부터 다양한 수중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왔으며, 수중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류는 형태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특징은 유선형의 체형과 단순한 형태의 골격, 지느러미, 구형의 눈, 그리고 비늘이 있다. 유선형의 형체와 지느러미는 수중생활을 위해 진화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균형을 잡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물고기의 움직임을 도와준다.

물고기의 생김새 각 부위별 명칭을 간략히 그림으로 설명해보면<그림1> 눈은 머리 앞부분에 한 쌍이 있으며 안구는 물속의 환경에 적당한 구형으로 또렷한 시야를 확보하지는 못하나 먹이, 이성, 적을 발견할 수 있다.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으로 주둥이 윗부분에 한 쌍이 있으며 눈의 역할보다 더 뛰어난 감각으로 먹이를 찾고 적으로 부터 몸을 숨길 때 사용, 심해어류 및 야행성 어류에서는 시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입은 머리 부분 입

끝의 주둥이 아래쪽에 있으며 신맛, 짠맛, 쓴맛, 단맛 등을 감지하는 미뢰(맛봉오리)는 혀, 입 주변, 아가미, 지느러미 수염 등에 분포하여 맛을 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아가미는 입과 연결되어 혈액중의 co2를 배출하고 물속의 산소를 흡수하며 아가미에 붙어 있는 갈퀴는 먹이를 걸러서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피부는 표피의 진피 2층으로 되어있고, 물의 마찰력을 줄여 주며 기생 생물의 부착을 방지해 몸의 표면을 보호하고 체내 삼투압을 조절한다. 비늘은 몸의 표면을 보강하며 동일종에 있어서 거의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 분류학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비늘 표면의 무늬에 의해서 연령이나 어군 계통의 측정도 가능하다. 지느러미는 수직 지느러미(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와 짝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가 있으며 몸의 평형 유지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며 짝지느러미의 경우는 다른 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에 해당되는 운동기관이기도 하다.³⁾

<그림 1> 물고기 각 부위의 명칭



3) 이현정 『자연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9~30)

2) 물고기의 상징성

상징이란 그리스어로 Symbolon⁴⁾에서 유래했다. 형식적으로는 다른 두 가지의 것이 서로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의미로 관련을 맺고 한편이 다른 편을 표징⁵⁾ 또는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개념들을 초(超)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 말하기도 한다.⁶⁾ 카시러⁷⁾에 의하면 상징이란 어떤 특수한 형태의 감각적인 것 안에 의미가 구현되어 있는 일체의 현상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의 인식은 감각 표현 선상 위에서 연관되어 활동하며, 우리의 인식과정 전체를 상징적 특성을 지니며, 인식의 대상은 상징에 의해 창조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다른 색의 옷을 입기도 하지만 인류의 정신문화사 앞에 선 공통분모를 형성하며, 어떤 의미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인 동시에 앞으로 변화하고 생성될 의미의 전단계이기도 한 것이다. 작가가 경험한 것, 지각한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해 표현한 예술은 ‘상징’이다. 특히 시각예술은 태곳적부터 형성되어 온 ‘집단무의식’을 통한 상징이라고 보았다.

물고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의 삶에서 하나의 상징적 요소로 자리하였다. 원초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원시시대의 물고기 그림은 우리나라의 경

4) symbolon-함께 혼합된 것이나 식별기호라는 의미

5) 표징(標徵)-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6)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226

7) Ernst Cassirer-독일의 철학자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해석과 분석으로 유명하다. 주로 칸트에 연구기반을 두고 칸트의 기본원리를 확장했다. 주요저서로는 “상징 형식의 철학”이 있으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인간 자신의 상징 활동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 신석기과 청동기시대의 바위그림에서 많이 나타난다.⁸⁾ 고대 미지세계 속에 자연의 전령이었으며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식량으로서의 산물과도 같아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신성 했었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 물고기의 어원은 근대에 생긴 조어로 추정된다. 물고기의 고어는 '비리다'라는 뜻의 어근인 '빌'로 옛날에는 물고기의 뜻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⁹⁾ 동, 서양에 있어 물고기에 대한 상징성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다. 중국에서는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의 발음에서 유래, 부유함과 풍족함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의미하고 있으며 서양의 경우 인도와 유럽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풍요와 지혜의 상징으로 깊은 바다에서 호수, 그리고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고 한다. 종교나 신화 속에서 물고기는 각 종교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 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불교에선 속박으로 부터의 자유, 욕망이나 번뇌로부터의 해방을 상징, 불족석¹⁰⁾에 새기거나 늘 눈을 뜨고 있는 모습으로 수행자들의 정진을 위해 목탁이나 목어, 불당이나 불탑의 처마 밑 풍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힌두교에선 물고기는 구세주인 비슈누 신이 제1의 화신으로 나타나 인간을 홍수로부터 구해 새로운 종족을 이루었으며 최초의 인간 마누를 구했던 금색 물고기인 물의 신 바루나의 상징으로 사랑의 신의 부수물이다. 서양의 기독교 에서는 그리스도 본인 자신으로 상징됨으로 신성시 되는 존재이다. 또한 그리스신화 속에서도 물고기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변신한 모습으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부수물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물고기는 시대와 역사, 시, 공간을 넘어 중의(衆意)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다. 알을 많이 낳는 생물학 적 특성상 선사시대에

8) 장덕희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일반편, 도서출판 예경, 1994) p43

9) 김현식 『한국 문화 상징 사전』 (동아출판사, 1995) p289

10) 불족석(佛足石)-석가모니가 입멸하기 전에 남겼다고 하는 발바닥 모양을 새긴 돌

는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상징화 되었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자손 번창의 의미로 결혼용품에 장식적 요소로 물고기 문양을 사용 하였다. 그 밖에 입신출세, 부귀와 행운, 사랑을 상징하는 모티브로서 민화나 공예품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용문의 급류를 통과하면 용으로 변신한다고 하여 학문적인 명성이나 시험에 합격하여 등용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물고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습성이나 모습으로 인해 중의적인 상징적 동물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으며, 심해속의 많은 어종은 색채나 형태의 심미적 아름다움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의 대상으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물고기 형상을 통한 조형적 표현

1) 일탈의 의미

일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래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으로부터 빠져 벗어남'을 의미한다.¹¹⁾ 사람들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정해진 규범, 즉 제도라는 객관화 된 지표 아래 살아가며, 그 밖의 개인 생활 속에서 본인만의 주관화 된 지표를 정해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 생활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조직,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며 이러한 규범들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간단히 말해 일탈행동이란 정해진 틀에서의 벗어난 행위를 일컫는데 단순하게 규정지을 수 있지는 않다. 각 사회의 문화적 상황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 이희승 『국어대사전 제3판』 (민중사, 1998)

일탈행위에 관한 정의는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탈인가는 고찰하는 데에서 일탈에 관한 정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즉,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도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탈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결론적으로 일탈행동이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규범의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일탈’은 긍정적 의미의 일탈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각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남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일탈의 순간능으로 표출 되지 못한 감정이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표로 제시해 준다. ‘일탈’이란 단어를 차용해 본인만의 언어로 재해석. 상징적 조형언어로 화면위에 독립된 이미지로써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2) 일탈의 이미지 표출

20세기의 미술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적 예술이다.¹²⁾ 이는 작가가 속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작업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으로 그 시대의 환경과 시대적 요인의 재해석 적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미술사에서 나타난 어느 특정 양식을 쫓기 보다는 작가 자신의 표현 욕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이념을 토대로 복잡하고도 주제의식이 뚜렷한 예술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은 입시지옥이라는 불명예 명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한 곳만을 향해 학창시절을 보내왔다. 학교라는 틀 안에서 정해진 규칙아래 반복

12) 윤현섭 『추상미술과 知의 자아』 (인간사랑, 1997) p32

되는 생활을 거쳐 대학생의 신분으로 생애 첫 거대한 자유를 만나게 되었다. 미술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식의 습득 뿐 만이 아닌 작업을 통한 자아의 발견 및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의식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 안에서 '일탈'이란 주제는 내면에서 늘 자리하고 있던 나약한 외침으로 대학교 4학년 졸업 작품을 시작으로 본 연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통된 주제이다. 본인을 둘러싸고 있던 일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잘 것 없으면서도 단단한 모습으로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 정교하게 짜여진 것으로 전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늘 정상궤도의 진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탈을 꿈꿔왔다.

일상은 기본적으로 지루한 삶의 연속물이므로 사람들은 무던히 이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일상의 궤적을 벗어나고자 '일탈'이라는 행동을 감행,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시행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어 어떤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보지만 결국 다시 회귀하는 곳은 또 일상이다. 이러한 일탈이라는 언어를 조형적 언어로 재해석, 물고기와 물속 풍경, 물 표면에 비친 외부 풍경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이미지란 심상, 표상, 내적부재, 형상성 등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상물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 평가, 연상 등의 심리적 요인까지 통합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¹³⁾이며 예술가가 대상을 표현하는 것은 세밀한 관찰을 통해 자신만이 얻어낸 이미지와 감동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법에 의해 나타내고자 함이다.¹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문구는 당연한 진리로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어 준다. 물고기는 육지동물이 갖고 있는 생존의 가장 근원적인 신체기관인 폐대신 물속의 생활에 적합한 아가미를 갖고 있기에 물

13) 정시화 『조형심리』(미간행, 1994)

14) Herbert Read, 윤일주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을유문화사, 1991)

고기에게 있어 물은 생존의 터전이며 나아가 우주의 전체와도 같다. 마치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틀 안에서 일탈을 통해 다른 세상을 꿈꾸지만, 결국 안전한 그 틀 안으로 다시 회귀하듯, 물고기는 수면에 비친 바깥세상의 사물들을 보며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지만 물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활 속에 '나'와 나를 포함한 생활을 의인화시켜, 조형언어로 해석하고 이미지화 하였다.

위의 작품주제는 다양한 은유(Metaphor)¹⁵⁾를 통하여 작품에 나타난다. 물고기는 '나'인 동시에 또 다른 '나'의 모습들로, 이에 끝나지 않고 색채와 여러 조형요소들과 함께 작품의 주제인 긍정적 일탈을 표현, 꿈과 희망을 드러내곤 하였다.

3. 작품설명

1)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현대 염색미술의 측면에서 염색을 정의한다면, '인간의 창작욕구와 미의식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된 염색행위, 그리고 그 결과물인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체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섬유미술에 나타나는 염색 작품의 형태는, 대부분 지지대로 사용되는 섬유 위에 다양한 염색기법을 활용하여 작가의 조형세계를 표현한 것들이다.¹⁶⁾

본 연구자는 작품표현을 위한 제작방법으로 염색을 선택하였다. 표현 방

15) 은유(隱喩:metaphor)- 은유는 합리적이고 산문적인 비교를 벗어나 질적인 도약을 통해 두 가지 대상을 동일시하거나 융합하여 그 두 가지의 특성이 다 들어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16) 이재선 『한국의 현대 염색』 (미술문화, 2001) p7

법으로는 염색기법 중 납을 열(90°C~100°C)에 녹여 액체상태가 되면 붓이나 필요에 따른 열에 강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방염을 한 후 원하는 밑그림 부분에 염색을 하는 납방염을 선택하였다. 이는 강력한 방염력이 있으며 작가가 구상한 작품의 표현이 가능한 염색법으로 같은 작업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표현하면 다른 회화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염직물로는 천연섬유 중 견뢰도가 우수한 동물성 섬유인 견직물(絹織物)¹⁷⁾을 사용하였고, 염료로는 알칼리 성분에 약한 견직물의 특성을 고려, 수용성 분말 염료인 산성염료(酸性染料)¹⁸⁾를 사용하였다.

작품 제작에 앞서 염색의 전처리 과정으로 정련이 있다. 이는 염색할 천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무기세제(가성소다, 탄성소다, 붕사, 규산소다), 비누(면비누, 수지비누, 마르세이유비누), 고급알코올세제 등이 정련제로 사용되고 있다. 염색하고자 하는 천 중량의 20~30배 되는 미지근한 물에 천 중량의 3%정도의 정련제를 넣어 30~40분간 충분히 담가둔 후 흐르는 맑은 물에 여러번 헹구어 틀에 팽팽하게 고정시켜 건조시킨다.

이와 같은 정련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작품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1) 사각 틀에 고정되어있는 피염물 위에 연필 또는 청화펜을 이용 밑그

17) 견직물(絹織物:Silk)- 명주실로 짠 천연섬유직물로 피르보인이 주성분이며, 섬유 표면에는 세리신이라는 끈끈한 아교질이 있다. 가공단계에서 비눗물로 정련하면 세리신이 없어지고, 부드럽고 우아한 광택이 난다. 우리나라의 견직물 역사의 시작은 은의 기자(箕子)가 누에를 치고 직조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기록한 한서(漢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삼한 때에는 제사, 양잠, 견직기술의 보급으로 견직물 제작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8)산성염료(酸性染料:Acid dye)- 밝은 색을 내는 합성 유기화합물로 카르복시기와 같은 산성 원자단과 아조 또는 니트로기와 같은 발색단을 갖고 있다. 산성염료는 보통 이들의 나트륨염의 형태로 주로 모나 견에 사용되며, 제한적으로 매염제나 정착제를 함께 사용하면 한정된 범위에서 면이나 레이온에도 염색이 가능하다. 수용성으로 색상이 선명하고 채도가 높으며 일광 견뢰도가 높고 열기에 강하다.

림을 그린다.

- (2) 계획된 순서대로 파라핀 또는 밀랍으로 방염을 한 후 산성염료로 채색한다.
-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채색하여 색의 농도와 색상을 표현한다.
- (4) 1차 과정이 끝나면 틀에서 분리, 갱지를 염색물의 위아래에 놓고 다림질의 열을 이용, 여러번 반복 하여 납을 제거한다.
- (5) 납이 제거된 작품은 신문지로 쌓아 원통으로 말아 증열기에 넣고 100°C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30분 증열처리한 후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 증열처리는 납을 제거하고 염료의 고착제 역할을 한다. 용도에 따라 납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염색물을 휘발유에 넣고 중탕처리 하거나 탈납제에 넣어 납을 완전히 제거 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자는 편리하고 빠른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 방법을 이용하였다.
- (6) 염료고착제(물1L:고착제¹⁹⁾5cc)에 약30분간 담갔다가 꺼내어 수세한 다음 건조시킨 후 배접작업²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완성시킨다.

19) 고착제- 섬유에 매염제나 물감을 효과적으로 고착하는데 쓰는 약제로, 매염 고착 용으로는 토주석, 탄산나트륨, 규산나트륨이 있고, 물감 고착용으로는 황산구리, 중크롬산칼륨이 있다.

20) 배접작업- 액자를 만들기 전에 하는 작업으로 종이배접이 있는데 이 과정은 염색물이 빠질 수도 있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단점이 있어 염색작업물은 심지로 배접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

2) 작품분석

【작품 1】 마음속 어딘가에서 항상 춤추고 있는 꿈을 보고 싶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97x140 cm

【작품 1】 마음속 어딘가에서 항상 춤추고 있는 꿈을 보고 싶다.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97x140 cm

사람은 각자의 모습대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엔 공통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 반복되는 생활의 패턴 속에 때로는 지치고 힘에 겹지만 그래도 포기 할 수 없는 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라는 별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한때의 반짝임 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박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꿈일 수도 있는 그 별은 삶의 목적이자 원동력이다. 하지만 그 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에 지쳐 밝기가 퇴색되어간다.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에 쫓기며 그 안에서 빛을 일어가는 ‘희망’이라는 잠재된 삶의 원동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우리 자신에게 일탈이라는 재충전 기회를 줌으로써 삶과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힘들지만 힘차게 나아가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화면을 편의상 삼등분 했을 때 상단부와 하단부는 물속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의 물고기들과 물풀 그리고 부레²¹⁾를 형상화해 우리의 현실, 일상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물고기는 ‘우리자신’을 대변해 주며 전체적으로 일정한 색채 속에서 미미한 변화를 준 푸른색의 배경위에 노란

21) 부레(swim bladder)- 대부분의 경골어류가 가지고 있는 부력기관으로 산소와 같은 가스가 들어있으며 부침조절기관의 역할을 해 어류가 떠오르거나 가라앉지 않고 일정한 깊이에 머물 수 있게 한다. 종류에 따라선 청각이나 평형감각 기관의 역할을 하며 호흡 작용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색, 주황색, 분홍색등의 보색으로 부레를 상징화해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화 했다.

중앙 부분은 물고기가 힘차게 떠오른 수면 위<도판3.>를 표현하였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대는 희망이 드디어 표출되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삶의 원동력'으로써의 희망을 상징화하기 위해 배경과 보색을 이루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색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배경의 색은 위, 아래 부분과 서로 융합되어 공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 공간 안에 복합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것을 단일한 매개체로써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2】 사람의 마음 안에는 공명을 일으키는 감흥이 있어야 한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102x140 cm

【작품 2】 사람의 마음에는 공명²²⁾을 일으키는 감흥²³⁾이 있어야한다.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102x140 cm

‘ 존경하는 인물은? ’ 유년시절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받아 본 질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축이 되는 사상이나 인물은 그 사람을 만들어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관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분열된 자아의 모습은 온전한 나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 나의 모습으로 나를 형성하고 있다. 마치 분리, 합체되는 장난감 로봇처럼 말이다.

작품속의 세 마리 물고기중 한 마리만이 온전한 형태이고 나머지 두 마리는 분열된 형체를 갖고 물의 흐름에 사라지기도 하며 물풀<도판2.>과 함께 한 몸으로 엮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 세 마리의 물고기는 하나의 물고기로써 자아를 상징하며,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주인공이다.

물풀을 상징한 붉은색을 띠는 잔 형상들은 마음안의 무수히 많은 감정들의 표현으로, 물고기의 몸과 겹쳐 현실과 이상 혹은 긍정과 부정, 감성과 이성 등 대립되는 갈등을 상징화 하였다. 이러한 마음의 소리는 각각의 개체로 볼 때는 미흡하고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축적되어 주관적 심리를 형성, 더 나은 내면적 자아를 만들어 준다.

분열된 자아를 상징화한 물고기는 한 형체 안에 보색을 같이 사용, 붉은 계

22) 공명(共鳴)-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함

23) 감흥(感興)-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열은 뜨거운 감성을 표현하였고 그에 반대되는 청보라 계열은 차가운 이성을 나타내었다.

화면의 세 모서리에 배치된 청색, 붉은색, 녹색의 흔들리는 물풀들은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 흔들림 속에 인간은 일탈을 꿈꾸며, 그 일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유채색 물고기의 머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 같은 곳을 향해있다. 이는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을 통해 한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내면형성은 연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자아를 형성해 발전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접하는 이러한 내적, 외적 상황 속에서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기 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의식의 반영이다.

【작품 3】 진실은 보이는 곳 넘어 그곳에 있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92x122 cm

【작품 3】 진실은 보이는 곳 넘어 그곳에 있다.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92x122 cm

심리학자 칼 융²⁴⁾은 무의식은 잠재의식처럼 단순히 억압당한 욕구가 쌓인 잡다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귀중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며 자아의 의식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세계로써 한없이 넓고 풍부한 세계라고 개념 지었다. 또한 그는 무의식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수단은 꿈이며, 꿈은 개인적 무의식을 직접 나타내는 중요한 본질적 표현이라고 하였다.²⁵⁾

무의식은 꿈꾸는 자, 즉 본인만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의 현실 지각에는 무의식적 측면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감각은 보거나 듣거나 하는 어떤 행위에 즉각 반응을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즉, 외부의 현상들은 현실세계로부터 내면으로 옮겨오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식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며 이것은 분명치 않은 생각 혹은 이미지이다. 즉 이미지는 외부의 지각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자신속의 것도 나타내게 된다.

또렷한 무엇을 볼 순 없지만 어떠한 지각행위를 거쳐 우리는 비로소 무의식의 세계, 즉 우리의 숨겨진 내면을 볼 수 있게 된다.

본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하고, 본 것만을 믿게 되는 우리의 일상속에서 탈피(일탈의 한 측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삶의 매 순간을

24) Carl Gustav Jung(1879~1961)- 성격유형지표의 근거가 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유형론자

25) Carl Gustav Jung, 조승국 역 『인간과 상징』 (범조사, 1981)p19

소중히 여기고 비로소 진실 된 자아를 마주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의 맨 밑바닥은 무질서하게 반복되는 잔상<도판5.>의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위에 불안정한 형태의 물풀, 구상화 된 물의 형태들 그리고 물고기의 부분적인 형태들이 층층이 쌓여 유사색의 사용으로 서로 융합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여기서 잔상들은 잡히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화하였고 그 위에 쌓인 조형요소들은 진실을 보게 되는 과정을 이미지화 하였다. 흐릿한 잔상속의 작은 물고기들은 자아속의 또 다른 자아이다.

앞에서 본 작품들과 같이 작품3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보색을 사용하였고 붉은색의 물고기 안에 밑바탕의 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해 한 화면 안의 구성요소들이 결국 한 인간의 모습으로, 단일한 매개체로써 완결 짓게 하였다.

【작품 4】 꽃보다 아름다워 2007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93x140 cm

【작품 4】 꽃보다 아름다워.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흘치기염

크기 : 93x140 cm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쌓고 그중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들은 가슴 안에 '추억'이라는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추억의 순간은 내면의 외로움, 방황, 혼돈의 시간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수많은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드러날 때 더욱더 값지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훗날 시련의 시기가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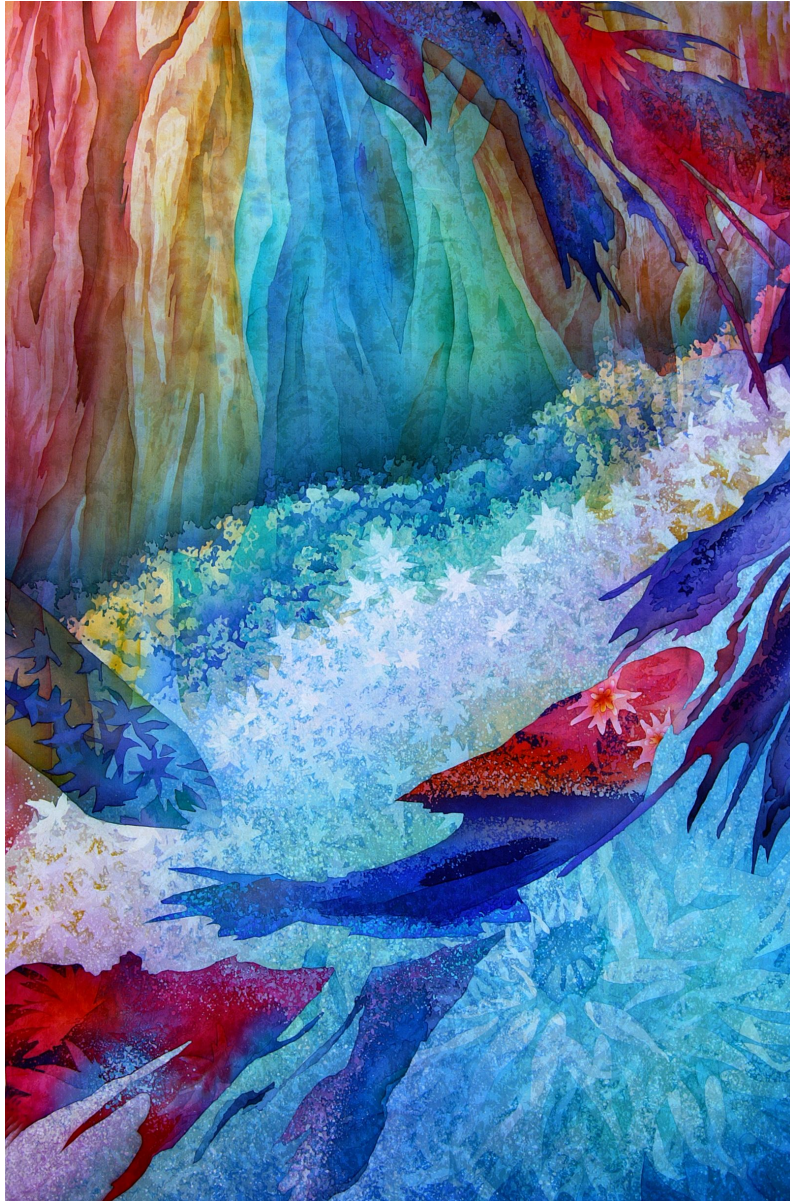
작품 아랫부분의 파도는 시련을 나타내며 그 위에 물고기는 밝은 곳으로 향해 극복의 과정을 표현하였다. 심해속의 부유하는 물고기와 꽃들은 우리 마음속의 무수한 기억들의 잔상이다.

주제가 되는 물고기 안의 꽃<도판4.>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한 순간의 기억으로, 이는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힘이 되어주는 추억의 상징적 표현이다.

화면안의 가장 밝은 부분은 세월의 흐름에 무수한 경험과 기억들이 쌓여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 지는 반면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표현하였다. 밝은 부분 쪽으로 빛의 터치를 살려 물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더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조형적 구성을 통하여 평면작업 안에서 깊이 있는 공간감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추억으로 상징화된 꽃을 품고 있는 물고기의 형체는 유선형으로 표현,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감성표현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5】 삶의 진정성, 나아가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92x122 cm

【작품 5】 삶의 진정성, 나아가다.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92x122 cm

‘모두가 YES를 외칠 때 NO를 외칠 줄 아는 용기’

오래전 CF에서 나온 문구이다. 이는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에의 표명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의 의견을 좀 더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그 편의 속에 자신의 소신을 잃고 궁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애매모호한 궁중심리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소신 있는 의지에의 표명은 일탈로 구분지어 질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부정적인 의미의 일탈이 아닌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바른 목소리를 내는 긍정적인 의미의 일탈이다.

한곳으로 몰린 수많은 물고기 떼들<도판1.>은 소신을 잃고 조류에 몸을 맡기듯 본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아가 없는 인간 군상을 나타내었으며, 단조로운 색의 변화와 일률적인 형태로 의미의 표현성을 더 강조 하였다. 겹겹이 쌓인 나뭇잎과 배경의 나무 몸통들은 수면에 비친 물 밖 세상을 표현 우리를 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린 사회를 상징화한 것이다.

작품에서 화면의 큰 흐름을 갖는 물고기의 ‘행진’(유영의 의미를 의인화함으로써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주체를 더 부각시킴)은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보라색이 첨가된 청색을 사용함으로써 이지적이고 강한 자아를 상징화 시켰고 붉은 꽃의 형상은 내면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 독립적인 자아의 주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품 6】 외출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견사(silk thread), 100x77 cm

【작품 6】 외출.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견사(silk thread)

기법 : 납방염

크기 : 100x77 cm

외출의 사전적인 의미는 집이나 근무지 등에서 벗어나 잠시 밖으로 나감을 뜻한다. 본인은 【작품6】에서 일탈이라는 주제를 ‘외출’로 해석해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출로 의미를 한정 지었다.

우리는 우리가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의 사람들과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관계 안에는 감정이라는 복잡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를 넘어 그 이상의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 중 미움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감정들이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린 관계는 서로를 책망하거나 원망하며 혈투기에 바빠 그 관계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폭 빠진 관계는 미화된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원하게 되고 심해지면 집착으로 변해 그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이성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혹은 그 직전에서만 그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거나 혹은 끊어지게 된다.(그러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관계라면 끊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되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관계의 외출’이라 정의내리고자 한다. 이는 관계에 있어서 결국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일탈로 편협한 마음의 시선을 잠시 한 발짝 밖으로 나와 바라보게 되면 가려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화면을 채우고 있는 유동적인 면들은 물고기를 간략화 한 형태로 한 곳으로 몰려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어느 한 감정에 치우친 우리를 상징화한 형태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파라핀을 뿌려 불규칙적이며 운동감 있는 색면 들로 채워 표현하였다. 더 극적인 이미지를 위해 강한 붉은 색과 한데 섞여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면 또렷한 형태의 물고기들은 관계를 일탈한 모습으로, 일탈을 한 후 밖에서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본 관계를 통해 그제야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염색 작업이 다 끝난 후 마지막 작업으로 견사를 이용해 화면 전체를 아우르는 곡선을 흠질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감정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며 흐르고 있음을 유동적으로 상징화 한 것이다.

【작품 7】 삶, 익숙한 것 외에도 많은 낯선 것들의 공존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실크스크린(silk screen), 105x148 cm

【작품 7】 삶, 익숙한 것 외에도 많은 낯선 것들의 공존.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 : 납방염, 실크스크린(silk screen)²⁶⁾

크기 : 105x148 cm

우리는 삶속에서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현시대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매체로 인해 경험의 폭이 훨씬 다양해 지고 깊어졌다.) 새로 축적된 경험들은 그 전의 낡은 경험을 수정 혹은 삭제시켜 새로운 지식을 쌓아준다. 그러나 이런 낯선 것들은 때론 지나간 과거속의 삶과 그 주변 모든 것들을 동경하게 만들며 그것들을 그리워하게 한다. 이를 과거로의 일탈로 규정짓고 【작품7】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과거의 경험들은 어제와 오늘을 포함하며 그 경험은 오늘을 조건 지으며 내일을 형성한다. 이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형성하고 현재는 미래를 낳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주황색 계열의 배경은 따뜻하고 익숙했던 과거를 상징화 하였고 교차되는 두 마리의 물고기는 현실과 과거, 즉 익숙한 것 과 낯선 것들의 충돌을 표현 하였다. 여기서 교차되는 지점의 배경의 어둠은 혼돈을 상징화 한 색으로 여러 번 덧칠해 나온 색으로 깊이를 두었다. 두 마리의 물고기 중 왼편의 물고기는 과거의 색으로 표현된 주황색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었으며, 그 아래 똑같은 형태를 그림자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과거 속의 또 다른 과거를 상징화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 축적된 경험은 현재의 삶속에 공존함을 나타냈다.

화면의 윗부분의 물고기는 회색 테두리 안에 화려한 색의 꽃들로 가득 차있다. 빛바랜 흐린 회색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경험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26) 실크스크린기법-직물이나 종이의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하여 잉크나, 물감, 안료 등을 문질러 넣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판화 및 인쇄,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 응용할 수 있다.

있고 그 안의 꽃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할 아직은 낯선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그것들은 서로 한 몸으로 표현되었다. 과거의 경험들은 현재를 지탱해주는 윤활유이며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본 작품에서 삶이란 우리에게 지난 삶의 흔적처럼 익숙한 것 의외에도 많은 낯선 것들의 공존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8】 칼나의 영속성, 사랑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77x100 cm

【작품 8】 찰나의 영속성, 사랑 2007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77x100 cm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들, 자연이 경험하는 일들, 삶의 일상들은 시간의 흐름과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형²⁷⁾ 혹은 변화²⁸⁾되어 우리 주위에 존재하게 된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이 있듯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간은 모든 것을 순리에 맞춰 흐르게 한다.

사랑 또한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중 삶의 진정성이 가장 많이 묻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행복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슬프면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다고, 당신이 있기에 온 세상이 다채롭다고, 당신이 없으면 온 세상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소리쳐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끝날지라도 그리고 돌아보면 허무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사랑의 시간들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에 웃으며 아픔에 울며,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바라기에.

작품 속 화면의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있는 다채로운 색들은 사랑의 모습으로 천위에 스미는 번지기 기법을 통해 자연스레 만들어져 가는 사랑의 풍경을 이미지화 시켜 표현하였고, 화려한 색의 꽃과 물고기들은 사랑의 주체를 표현하였다. 미색에 가까운 바탕은 시간 속에 점차 넓어져 가는 사랑을 의미한다. 사랑에 있어서 딱히 기억할 것도 잊어야 할 것도, 정해놓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이 끝나면서 시간 속에 필터기를 정착해 놓은 듯 자연스레 잊고 살아

27) 변형(變形)-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짐

28) 변화(變化)- 사물의 성질, 상태가 달라짐

가게 된다. 작품 속에서 검은 선만으로 표현된 조형요소는 이를 상징화 한다. 사랑의 모습과 똑 같은 형태지만 색도 면도 없는 선만으로 존재함으로써, 시간 속에 사라져간 사랑의 흔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선 안에 언젠가는 또 다른 고운 빛으로 사랑을 물들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사랑이 끝나면 흔적을 남기고 다시 또 다른 사랑으로 일탈 아닌 일탈을 한다. 그리고 또 그 일탈이 끝이 나면 또 다른... 사랑은 시간의 흐름 앞에 영속성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Ⅲ. 결론

예술이란 정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르 및 주제 면에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술이란 예술가의 내적 심상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독창적인 조형 세계에 의해서 표현된, 산고의 고통과도 같은 결과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들과 관계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삶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함은 반드시 표현하려고 하는 사물의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를 가지게 마련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술가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을 선택하고 이런 주관적인 영역을 조형언어로 풀어 객관화시켜 그들의 내면을 좀 더 명료화 하고자 한다.

본인은 본인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재 되어있는 '일탈을 꿈꾸는 자아'를 물고기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시도와 함께 그 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자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자아의 모습이, 온전한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일종의 해방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일탈에의 욕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탈'이라는 삶의 긍정적인 다양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현실속의 나와 일탈을 꿈꾸는 혹은 행하는 나는 분리가 아닌 하나의 개체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앞으로의 작업 활동을 통해 보다 함축적이고 진실 된 삶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조형형식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표현방식에 있어 낯방염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염색이 공예적인 염색의 틀 안에 안주하지 않고 회화적 미술로서 확실한 표식을 남기고 싶다.

끝으로 본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묻혀 있던 소중한 꿈과 희망, 기억을 일깨워 주며 각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들어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풍요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준민, 『동물학 사전』, 창원사, 1983
김현식 『한국 문화 상징 사전』, 동아출판사, 1995
노분조, 『한국 동식물 도감』, 삼화서적, 1997
세계의 동물 3, 『어류2』, 동아출판사, 1982
세계 해양 전시관 도록 『제1집-어류』, 1991
이재선, 『한국의 현대 염색』, 미술문화, 2001
이희승 『국어대사전 제3판』, 민중사, 1998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장덕희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예경, 1994
정시화 『조형심리』, 미간행, 1994
실반바넷, 김리나 역 『미술품 분석과 서술의 기초』, 시공아트, 2006
Herbert Read, 윤일주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91
W.타타르키비츠, 공효주 역 『미학의 기본개념사』, 미술문화, 1999

【학위논문】

- 박선영,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진, 『일탈의 형상화를 통한 패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9

이수정. 『현대소설의 일탈적 인물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윤정선, 『은유적 이미지에 의한 자아의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정기 간행물】

『National Geographic』

『Fiber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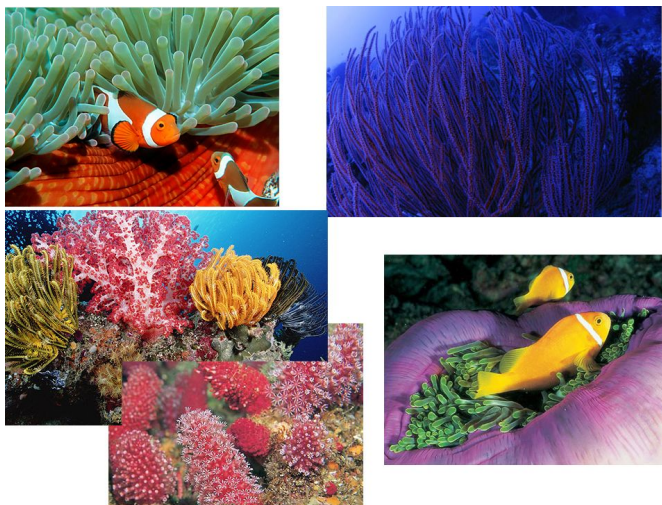
『월간사진』

참 고 도 판

<도판1.> 바다 속의 모습



<도판2.> 해초의 색과 모양



<도판3.> 바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운동감 이미지



<도판4.> 꽃이 갖고 있는 모습



<도판5.> 배경 이미지 : 그림자를 통한 겹침, 수면위에 반짝이는 잔상,
우주 속의 다양한 색과 잔상



ABSTRACT

The expressive research on escaping daily routine imagery through fish

Kim, Min Ju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Big motivation for my work is to temporarily escape from the daily lives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venture to new strange places.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production background, contents, figures and in return will provide guidance toward subjective observation of process, which by meeting new ego through 'positive departure', which can be defined as action of searching for another ego within an ego, The figurative expression of deviation covered in this study is a positive one, which is meant to be constructive by releasing many different emotions that we have encountered through our lives.

Subjects reflected with mentality such as desire to deviate will be reinterpreted in my own language then be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thus creating a mental space. The mental space is expressed as one space in which a reality and an ideal is mixed, where various egos are mixed together in order to satisfy a desire of deviation, or where an ideal world is described.

I tried to symbolize a desire of deviation through a fish which dreams of a world outside the water from within the water which is not the land with the air that humans breathe on, and express both a reality and an ideal by including extra elements such as scenery of in-the-water, flowers, water plants, and trees.

Through transparent overlapping effects of coloring work, I created unique depths in colors and shapes so that each figurative element fuses into one another and coexists. Thus it allowed comprehensive composition in one space, and can be completed as a singular being, expressing another ego within an ego which dreams of desire of deviation.

This study explains figurative parts such as motivation of work, methods of production, organization of screen, colors and shapes. It is also a experimental process of methods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by expressing very subjective mentalities and experiences in a figurative language which can be interpreted objectively. By expressing new positive sides of a desire of deviation by this study and relative work, I intend to understand the desire a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a self's ego, and moreover provide profound medium to communicate with others.